

운송/조선/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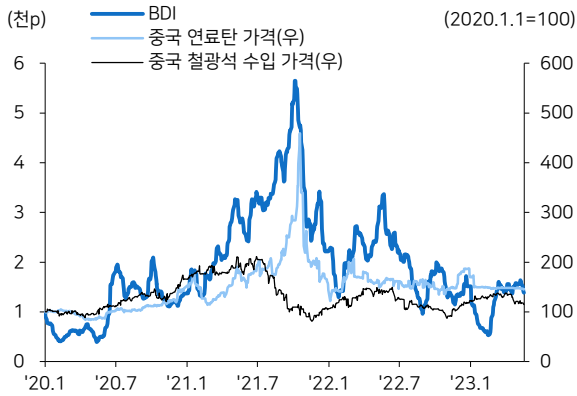
02. 6454-4879
kiyeon.bae@meritz.co.kr

02. 6454-4873
jungaha.oh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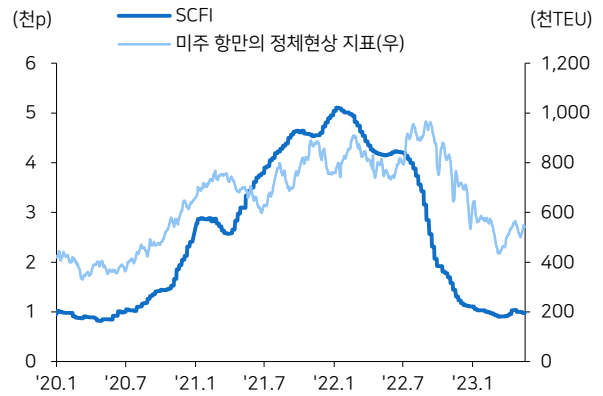


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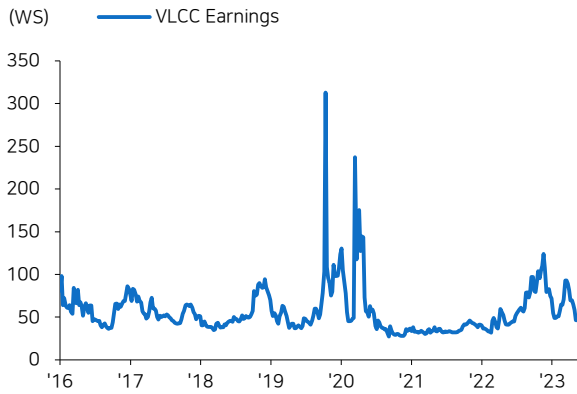
건화물운임(BDI) 1,215.0p(-80.0p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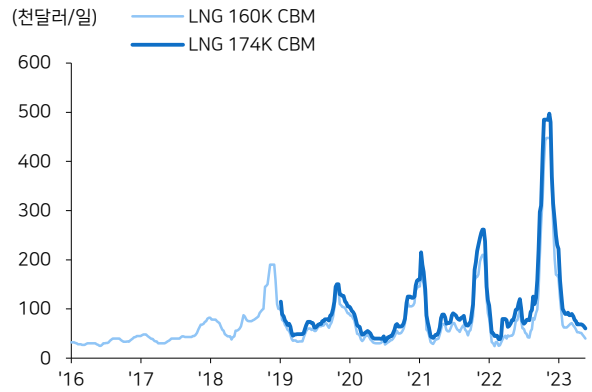
컨테이너운임(SCFI) 972.5p(-11.0p WoW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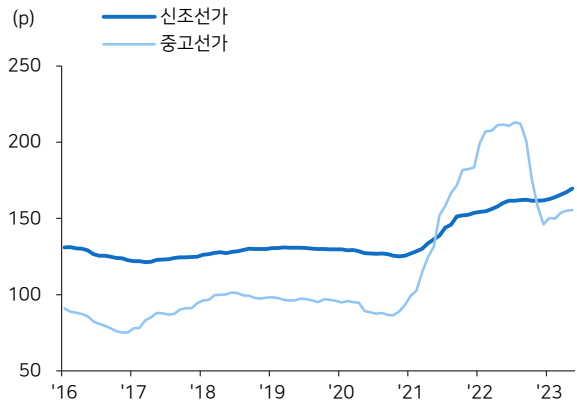
VLCC Spot Rate 51.1p(+4.6p WoW)



LNG Spot 운임 40.0천달러(-4.0천달러 WoW)
60.0천달러(-5.0천달러 WoW)



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9.5p(+0.9p WoW)
155.5p(+0.3p WoW)



중국 내수 후판가격 575.0달러(-6.0p DoD)

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Mitsui & Co returns to Hyundai yard for product tanker newbuildings

일본 Mitsui&Co가 현대미포조선에 MR탱커 2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. 50,000DWT급으로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될 예정임. 척당 4,380만달러에 계약했는데, 2022년에 발주한 선박대비 3% 비싸다고 알려짐.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상승에 기인한다고 설명함. 2026년 7월부터 인도될 예정임. (Tradewinds) (<https://t.ly/rwOV>)

Vale eyes India as it prepares for peak in China steel production

Vale이 중국 철강 생산량이 몇 년 내에 정체되고 2030년이 되기 전 감소를 전망했다고 보도됨. 그럼에도 중국은 최대 생산자겠으나 다른 국가들과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고 언급됨. 한편, 개발도상국의 생산량은 현재 연간 2.52억톤에서 2040년에는 6.20억톤수준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으로 언급함. 유럽·미주·일본 및 한국 생산량은 약 20% 증가한 7.40억톤에 달할 전망이라고 언급됨. (Tradewinds) (<https://t.ly/ASMIr>)

삼성중공업, 회사채 추가 발행...한달만에 1,300억원 또 조달

삼성중공업이 사모채 1·2·3년물 총 1,3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고 보도됨. 1년물과 3년물을 각 550억원, 2년물은 200억원으로 알려짐. 금리는 1년물이 연 5.950%, 2·3년물은 연 6.3~6.5%로 알려짐. 지난달 발행한 2·3년물 금리가 6.5~6.7%였던 것에 비하면 한달 만에 0.2%p 낮아졌다고 알려짐. 발행목적은 운영 및 차환 용도인데,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물량은 26일 400억원어치가 전부로 알려짐. (파이낸셜뉴스) (<https://t.ly/cYZk>)

Aramco driving increased jack-up rig demand in Middle East, says Clarksons

사우디 Aramco가 잭업리프 58척 중 67%를 차지하며 중동지역 수요를 이끌고 있다고 보도됨.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선대를 확장하고 있다고 알려짐. 현재 12MBPD 생산에서 2027년 13MBPD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임. 2022년부터 중동 잭업리프 수요는 23% 증가했다고 알려짐. 4월말 기준 가동률은 90% 수준이고, 고스펙 설비의 일일 용선료는 125,000달러수준으로 언급됨. (Upstream) (https://t.ly/VL4_)

China on alert as ageing tankers discharge Russian crude

Vortexa에 따르면, 중국에서 하역하는 선령 10년 이상의 노후탱커들이 증가했는데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알려짐. 이들 선박은 중국의 강화된 항만검사 후보이고, 만일 억류 등 패널티를 받으면 글로벌 선복량 및 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됨. (Tradewinds) (<https://t.ly/vpbm>)

Lines look for Panama fillip to seal delayed transpacific contracts

한태평양 컨테이너선사들이 6월 장기계약에서 운임인상을 할 전망으로 보도됨. 업계에 따르면 일괄운임인상(GRI)을 위해선 임시결항을 크게 늘려야한다고 언급됨. 5월 24일 기준 아시아-미주서안 운임은 200달러/FEU 하락했다고 알려짐. 가뭄으로 파나마운하 요금 인상이 예상되며 해당 노선 운임은 인상될 수 있고, 그 영향이 미주 서안 수요 증가로 연결돼 미주 서안 운임도 인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됨. Zim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지 않는 계약을 맺기 위해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짐. (Tradewinds) (<https://t.ly/Jb7ST>)